

# 보도자료

|     |   |
|-----|---|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 사회, 통일, 사진 담당)   |
| 담당자 | 평화행동 한경준 (010-2224-3975), 민주노총 박정옥(010-6511-6181)<br>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강연(010-5590-9134) |

##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긴급기자회견

2019년 1월 24일(목) 12시 / 정동길 로터리  
(미대사관저 50M앞, 서울중구 정동7)

기자회견 후 미대사관저로 50M이동하여  
해리스 미대사와 미국을 규탄하는 1인시위 진행 예정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경의를 표합니다.
2. 민주노총, 민변, 평통사, 한국진보연대 및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이하 평화행동), SOFA개정국민연대 소속의 단체들은 1월 24일 목요일 12시에 미대사관저 앞 정동길 로터리에서 <주권, 국익,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3. 최근 해리스 주미대사가 청와대를 찾아가 협박에 가까운 압박을 한 것이 밝혀지는 등 방위비 분담금 협상타결을 앞두고 한국정부에 대한 미국의 대폭 인상 강요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4.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까지도 과책정 되어 1조원이 남아돌아 수천억의 불법적인 이자수익까지 올리는 등 대폭 삭감이 마땅한데도 미국은 강요하고 한국정부는 굴복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주권과 국익이 훼손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무엇보다도 평화의 새 시대가 열려 평화협정체결이 눈앞의 현실적 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평화협정체결 국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을 비롯한 이와 관련된 방위비분담금 등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때에 이루어지는 근거 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은 명백하게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6. 기자회견에는 ▲한국진보연대 한총목 상임대표 ▲민주노총 엄미경 부위원장 겸 통일위원장 ▲민중당 최나영 공동대표 ▲평통사/평화통일연구소 유영재 연구위원이 발언과 회견문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7. 기자회견을 마치고 참가자들은 **50m 이동하여 미대사관저 정문에서 “주권,국익,평화에 역행하는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과 “청와대를 찾아가 인상협박을 일삼은 해리스 미대사를 규탄”하는 1인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은 기자회견 현장에서 배포함을 양해바랍니다. 언론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협조 부탁드립니다. (끝)